

건축문화 사랑

Vol.048 10. NOVEMBER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 11

048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02 기념사 & 특집기고



김형수 건축문화신문 편집국장



이상일 건축사신문 편집주간

03 특집기획 건축문화사랑을 만드는 사람들

04-05 특집 인터뷰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 기념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 인터뷰!

06 동양건축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2부
》창호(窓戶)로 보는 3국 건축

07 설계경기



당선작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우수작 : 길 건축사사무소 김삼현 건축사

08 문화제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2013. 11. 21 (목) ~ 24 (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



13 독자광장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4주년이 되기까지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일동 —

건축문화

사랑 창간 4주년 기념사

지대한 관심이 한곳에 모이면 “사랑”이 되듯,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을 한곳에 모으고자 만든 것이 “건축문화사랑”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중심이 되어온 건축에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모아서 집필해 온 건축인의 소식지 “건축문화사랑”이 어느새 창간 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발간을 담당해온 편집위원들과 격려하고, 후원하여 주신 모든 관계자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수준의 척도인 만큼 “건축문화사랑”은 지역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건축인들이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장으로써 건축 관련 문화의 다양성을 알 수 있으며, 건축계 소식을 모아서 전하는 역할을 동시에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그린은 ‘미스터리 법칙’이라는 책에서 “달인은 1만 시간, 천재가 되는 데는 2만 시간의 수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과업은 씨앗을 키워 꽃을 피우는 것이지 신이 내린 천재는 없다. 누구나 어떤 일에 2만 시간의 수련기를 거치면 그 분야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4년이라는 시간

은 아직 어린 가지를 가진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풍성한 나무로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다른 곳에 뿌려질 좋은 씨앗을 받을 때까지 우리 “건축문화사랑”이 앞으로 지역 건축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도 매체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외부의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건축문화를 만들어감으로써 모든 독자들로부터 환영 받는 ‘건축 정론지’로써 역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새로운 모색으로 변화를 꾀하며 끊임없는 성찰을 통하여 독자의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본지를 통하여 우리 건축인들의 아름다운 꿈을 함께 만들어가고, 시민들의 건축문화 사랑이 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축문화사랑 공동발행인 일동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김 남 중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안 길 전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국 원 식

“건축문화사랑 신문” 을 말한다.

■건축문화신문(대한건축사협회 발행 / 2006년 9월 9일 창간)

■건축사신문(부산·울산·경남건축사회 공동발행 / 1999년 5월 21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을 축하하며

김형수 편집국장/건축사
건축문화신문
씨디에스 건축사사무소(주)



소통과 공유의 장을 기대하며...

이상일 편집주간/건축사
건축사신문
한솔 건축사사무소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문화사랑은 광주와 전라북도 회원들의 활동과 소식을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매달 보내주는 건축문화사랑의 애독자이며, 호남지역 건축사 회원들의 열정과 노력을 이 신문을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사랑과 같은 언론은 호남지역의 건축사와 건축 활동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건축사 회원들의 작품을 게재함으로써 지역 건축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또한 타 지역에도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문화사랑이 아니었다면, 필자도 호남건축에 대한 이해가 지금 보다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호남건축에서 느껴지는 자연주의적이고 인간적인 매력은 건축문화사랑을 통하여 소개되었으며, 호남건축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건축사지 2013년 9월호에 43페이지에 걸쳐 수록된 특집 기획인 “호남건축의 정체성을 찾아서”도 필자가 건축문화사랑을 통해 얻게 된 호남건축에 대한 지식이 바탕이 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건축이 갖지 못하는 호남건축만의 정서와 정체성을 인터뷰와 작품을 통하여 전국의 건축사 회원들에게 소개하였던 기회를 갖게 되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축 언론은 건축 작품과 건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거기에서 얹혀지는 건축의 흐름을 분석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여 주며, 또한 그것을 비평하고 평가하여 하나의 흐름을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언론의 역할은 또한 건축사들에게 시대적인 조류와 방향을 깨우쳐주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작품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은 이러한 언론의 역할을 잘 수행해오고 있으며, 호남지역 건축사 회원분들의 일체감을 고양하고, 지역 건축사의 통합과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건축문화사랑의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축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광주·전남·전북 건축업계의 정보 대변지로서 역할을 해온 ‘건축문화사랑’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간 건축문화사랑은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목표로 나날이 성장하며, 건축전문매체로써 자리 잡아왔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건축사 회원들의 관심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먼저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은 광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광주폴리’를 연상케 합니다. 건축문화사랑을 접할 때면, ‘문화도시 광주’의 정신을 담은 광주폴리의 ‘자유로움’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자유로운 지면구성을 뒷받침하는 특색 있는 작가, 공간의 다양화, 형태의 독특함 등은 곧 광주·전남·전북의 정신이자 건축문화 사랑의 무경계성과 다양성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양건축, 친환경건축 등의 기획시리즈, 기고란과 독자란을 통한 건축인의 참여, News를 통한 정보전달과 시론을 통한 건축인의 깊은 목소리는 광주·전남·전북의 건축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언론은 원활한 소통으로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긴 안목과 폭넓은 사고로 건축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것이 건축문화사랑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간 건축문화사랑이 폭넓은 시각으로 건축계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건축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정보의 제공을 통해 협회와 건축계의 발전 그리고 건축의 대중화를 위한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건축문화 사랑의 창간 4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에게 「건축문화사랑」이란!

창간 4주년을 지축하는 편집위원과 기지들의 이야기

건축과 도시와 문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그 누군가의 고견과 학식을 소개하고, 그 어떤 일과 소식을 객관적 시각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다. 영화로 치면 배우가 아니라 제작진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호에서는 창간 4주년을 지축하며 스스로 출연배우가 되어 우리들의 이야기로 지면의 일부를 꾸며본다. 독자와의 소통을 핑계로 삼아서... (편집위원, 건축사기자, 학생기자, 전담기자 일동)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아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편집위원을 하면서 갖는 나름의 소신이 있었다면 “편집위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보태져 지역의 건축문화발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이었다.

또, 크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봉사를 했다는 뿌듯함으로 보낸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 자신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원고의 오탈자를 찾기 위해 좋은 글들을 읽어야 했고, 신문에 게재할 기사를 위해 좋은 만남을 자주 가졌으며, 그 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웠다.

거창하진 않지만 건축문화사랑을 위해 또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뭔가 작은 보탬이 되는 일들을 다시 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 -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건축문화사랑과 함께한지도 벌써 4년여. 그 4년여의 시간동안 나의 삶이 변하듯이 나의 열정도 그때만큼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도 편집회의를 끝내고 나면 그 열정과 열의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주어진 담당지면을 보게 된다. 정말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으로 건축문화사랑의 발전과 건축사의 자긍심을 찾고자 뛰어다니는 편집위원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처럼 보람찬 시간들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그런 건축문화사랑의 역사에 잠시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참된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해가 저물지만 건축문화사랑은 내일을 위해 힘차게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건축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말이죠.

- 유민 건축사사무소 박중호 건축사 -

건축문화사랑과 함께한 18개월

나는 요즘 주로 설계경기 관련한 지면을 편집을 하고 있다. 주로 패널 형태의 파일을 받아서 독자들이 보기 좋게 편집해주는 일이라 그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건축문화사랑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해서 보람이 크다. 이 지역의 실력과 건축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작품이라서 당선작 등 수상작들을 비교하여 볼 수 있어 재미도 있고 도움도 많이 된다. 아마도 설계경기 지면을 눈여겨보는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예전의 나처럼.

하지만 최근 들어 지면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건축경기의 불황으로 건축설계경기 또한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라건대, 이 지역에서 건축설계경기가 활성화되어 넘쳐나는 자료들로 편집이 고민스러워지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 건축사사무소 라움 강동영 건축사 -

41호에 탑승하게 된 내

2012년,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제의를 받았다. 건축사로서 활동을 막 시작할 무렵이었기에 난 정말, 1학년 3반 학생처럼 흥분되고 벅차왔다. 하지만 선뜻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하고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마냥 부족한 내가 하기엔 어렵고, 거창하고, 부담스러워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2013년 3월경에 용기를 내어 “건축문화사랑 41호”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리고 취재와 인터뷰에 동참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존경스러운 건축인들의 열정과 경험들을 듣다보면 제자리에 안주하려했던 내 자신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건축문화사랑과 선배 편집위원들은 앞을 향해 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보면 좀 더 성숙해지겠지, 1학년 3반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이 있는 건축인으로!

그처럼 성숙하게 만들어 줄 건축문화사랑에게 나는 열정으로 보답하려 한다.

- 미 건축사사무소 윤미순 건축사 -

나는 매달 업로드(upload)를 한다.

건축문화사랑의 웹하드에 우리학교의 소식에서부터 나의 생각이 지 업로드를 한다. 우연히 동아리선배의 소개로 시작한 학생기자 활동. 하지만 시련도 있었다. ‘내 주제에 무슨 기사를...’, ‘나는 아는 것이 없어 못써...’ 무거워진 어깨와 함께 자괴감이 펜을 멈추게 했다. 이런 내게 건축사 기자님들의 격려와 광승국 기자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멀리 떨어져 있는 타 대학 학생기자들과 메신저로 교류하며 일상을 공유하고, 그들의 기사를 읽으며 기자에 대한 의지도 되새길 수 있었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배운 것이 많아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겼다.

나는 내 꿈을 건축문화사랑과 함께 업로드할 것이다. 오늘도 업(UP) 로드(road)!

- 전북대학교 학생기자 김소라 학생 -

관계하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 외 주변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겼다. 힘들 때 나와 함께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든든했고 어려울 때 나를 따르고 돕는 친구들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돕는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는데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결국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관계한 사람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고 앞으로의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다.

3학년이 되어서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학생기자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았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그 사이 많은 경험과 배움 그리고 발전이 있었다. 특히 가장 큰 성과는 다른 학교의 학생기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함께 웃고 고민할 수 있어 행복했으며, 건축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념도 가질 수 있었다. 남은 기간을 생각하면 매순간 순간이 떨리고 기대된다.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 순천대학교 학생기자 박중성 학생 -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택했던 것이 ‘건축’이었다. 건축이라는 것에 잘 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을 웃음 짓게 해주고, 포근하게 보듬어주는 건축에 매료되었었다. 그런 건축이 하고 싶어서 건축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년을 거듭할수록 회의와 불안이 엄습해 왔다. 그러던 중에 "기사 한 번 써볼래?"라는 선배의 권유는 위태롭던 내게 하나의 숨구멍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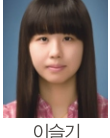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막연한 미래에 겁먹었던 내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준 선배에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건축문화사랑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는 소망한다. 누군가에게 나 역시 내게 기회를 주었던 선배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누군가에게 건축문화사랑이 꿈을 향한 기회가 되기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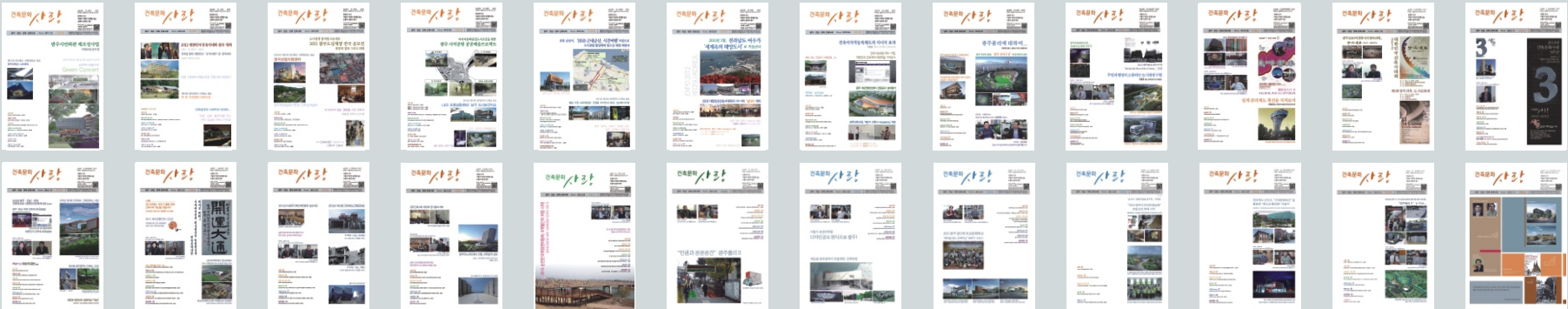
- 전남대학교 학생기자 김경훈 학생 -

.....

우리의 본업은 따로 있다. 그래서 본연의 활동을 해가면서 짬짬이 힘을 보태다보니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서툰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밀려드는 책임감과 중압감에서는 여전히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얄짤 없는 데 얄짤 없는 격으로 경기불황과 광고수입 저하로 재정난도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보람도 남다르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건축문화사랑 출범 4년! 아직은 걸음마에 불과하지만 사명감으로 다가와 어느덧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비록 지금은 힘겹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초석이 되어 언젠가는 의미 있는 성과물로 우뚝 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모든 지역 건축인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참여를 기대하며...

편집위원 건축사기자		학생기자	
			
박홍근 초대편집인	서재형 편집인	김소라	박중성
			
정영법	강동영	김경훈	탁지민
			
박중호	윤미순	이태현	강현재
			
김미영	김기범	이훈희	정세영
			
박신남	신영은	이슬기	이인종
			
정관성	송명욱	김소희	노경민
			
백재봉	정명환	두현정	천열홍
			
양우현	천경훈	남자영	서민석
			
장성호	이광영	이수정	선정준
			
박상윤	광승국 전담기자	김여루	김태웅



— 강운태 광주광역시장 ‘건축문화사랑’ 창간 4주년 기념 인터뷰 —

본 인터뷰는 일정 관계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인사말

‘건축·도시·문화’를 함께 담아내는 지역 유일의 건축전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호남지역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편집진 여러분과 지역 건축인 여러분께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창조의 시대’에 지구촌은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변화되었고, 도시경쟁력의 주요한 요소로써 ‘도시 디자인’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개성을 부여하는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어느 때보다 건축인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광주에서는 문화수도라는 자부심으로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대규모 국제행사에 걸맞은 김대중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게 된 것도 지역에 있어서나 건축계에 있어서도 고무적인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건축문화사랑」 신문은 지역 건축계와 세계 건축문화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건축인들이 새로운 전기를 모색할 수 있는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써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축문화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그 속에서 우리만의 개성과 경쟁력을 발견하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 신지식을 지역 건축인들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건축문화 선진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는 「건축문화사랑」 과 지역 건축문화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광주시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창의적인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증진과 자발적 참여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우리 광주는 ‘건축물이 곧 문화’라는 인식 하에 문화와 건축디자인이 접목된 사람중심의 고품격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디자인자문위원회 구성 및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행복한 창조마을 가꾸기 사업, 노후화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아파트 건립,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 세계적인 건축거장들이 참여하는 광주폴리 프로젝트,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 최첨단 야구장 건립 등이 그 실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는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건축공모전, 광주광역시 건축상 작품전시, 건축문화체험, 건축민원상담, 학술세미나 등 대단위 세부행사를 진행하는 국제규모의 건축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광주만의 소중한 자산인 민주·인권·평화라는 브랜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건축과 디자인을 통해 광주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담은 도시경관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건축선언’ 선포(2013.08.20)를 통하여 도시공간과 건축문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수도 광주!’, ‘창조도시 광주!’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

생각 하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사회는 ‘양적성장’의 개발시대에서 ‘질적도약’의 지식문화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토지관리·지역개발·도시계획 등 거시적 측면에서부터 녹색환경·디자인·건축문화 등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미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건축·도시 분야의 범위와 역할이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광주시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계획분야, 도시재생분야, 토지분야, 문화예술분야, 환경 및 공원분야 등 우리 시의 건축물 여건변화를 전망하여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관련제도 정비 및 실천방안을 정하고 목표를 설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광주만의 품격 높은 공간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과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의 기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연구 개발하여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중남부권의 성장거점 도시
정남진 장흥!
장흥지역 건축사회가
전라남도 장흥의 건축문화,
나아가 대한민국 건축문화
성장을 이끌어 갑니다.**

장흥지역 건축사회 정기호 회장 외 회원일동

정기호 / 가산 건축사사무소
강인수 / 예담 건축사사무소
박시영 / 아름 건축사사무소

문성식 / AUD 건축사사무소
정종훈 / 지우 건축사사무소
송승용 / 건축사사무소 지우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을 디자인공모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것을 골자로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함께, 지역 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발주방식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 시 건축설계용역 발주는 상징성이나 예술성을 요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수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디자인 공모(광주 제2컨벤션 건립공사, 이노비즈센터, 5·18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기념관 등)를 통하여 발주하였고, 업무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비교적 예술성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종합체육회관·장애인체육센터, 기후변화대응센터 등)은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의 디자인공모제 도입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여 문화수도 행복한 창조도시에 걸맞은 우수한 작품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건축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광주폴리Ⅱ’가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011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프로젝트로 ‘광주폴리’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100개의 폴리를 선보임으로써 세계적 도심재생 디자인프로젝트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주폴리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기획하고 추진해 오신 시장님으로서, 그동안 추진되어온 광주폴리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광주만의 매력과 특성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왔는데, 광주폴리 프로젝트도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광주폴리는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도시의 맥락 안에서 특정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변의 상황, 그리고 보행자와 함께 소통하며 구도심을 재생시킨다는 의미도 지녀 새로운 형식의 공공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차폴리는 「광주 역사의 복원」이라는 주제로 금남로, 충장로 등 구도심 일원에 일제에 의해 소멸된 광주 옛 읍성터를 따라 10개소, 푸른길에 1개소 총 1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작품 대부분이 도심공간에서 쉼터나 휴식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져 시민들이 모이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구도심 활성화에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광주폴리를 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도시전문가 및 교수, 학생 등 많은 외지인들이 광주를 방문하는 등 전국적인 이슈화에 성공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등 전국적으로 매우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1차폴리의 성과에 힘입어 2차 폴리를 추진하게 되었고, 2차폴리는 1차폴리와는 크게 네 가지 면에서 차별화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였습니다.

첫째는 주제인데요. 1차 폴리가 광주의 역사와 기억에 대한 복원이라면, 2차폴리는 인권과 공공공간이라는 주제로 인권도시 광주가 품고 있는 ‘광주정신’이라는 맥락 안에서 공공공간이 가지는 잠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소에 있어서의 유연성입니다. 1차 폴리가 장소선정에 있어서 역사적인 복원이라는 점으로 인해 지리적인 면에 제약이 있었다면, 2차폴리는 그러한 지리적인 제약에서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였다는 점이 또 다른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한 작가들이 건축가들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복합과 융합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2차 프로젝트는 건축가, 문학작가,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이 참여하여 건축에 미학, 인문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과의 소통의 적극화와 채널의 다양화입니다. 1차에서 시민대토

론회를 통하여 소통을 꾀하려고 시도하였다면,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안에서 시민들과의 접점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폴리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기획 단계부터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폴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폴리를 매개체로 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광주폴리가 가진 숨은 기능이나 의미, 다양한 활용방식에 대해 알리기 위한 방법들로 한 달에 한번 이뤄지는 폴리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다시 한 번, 조화로운 건축예술과 소통하는 건축문화를 조성하며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이루는데 기여해 오신 건축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은 유사 이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었고, 인류는 건축을 통해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건축은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 시대의 거울이자 종합예술입니다. 또한 건축물은 본연의 기능을 뛰어넘어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자원으로서 경쟁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건축물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어 문화적 가치를 창출해 나갈 때,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높아지고 우리는 한층 수준 높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광주 도시에 멋진 디자인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고, 기능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미관상 아름다운 건축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모든 건축인이 창조적 예술가라는 사명감을 갖고 건축물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주신 결과일 것입니다.

끝으로 건축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건축문화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도시 디자인의 발전과 창조적 도심 조성에 기여해 오신 건축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앞날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강운태 시장이 선정한 창조도시 광주의 이슈 건축물



▲ 김대중컨벤션 제2센터 준공 - 명실상부한 호남권 MICE 산업의 선두주자



▲ 광주 CGV 센터 개관 - 영화, TV, 애니메이션, 게임, 3D를 아우르는 영상의 메카

고창군 건축사는
자연과 건축문화가 어우러진
내일이 더 행복한 고창을
만들기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고창지역 건축사회 회장 심재룡 외 회원 일동

- 김상수 / 한솔 건축사사무소
김성규 / 나우 건축사사무소
심재룡 / (유)균정 건축사사무소
- 윤종환 / 엘 건축사사무소
전영배 / 대보 건축사사무소
김명국 / 신 건축사사무소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2부

» 창호(窓戶)로 보는 3국 건축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2-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0월 게재
2-2부 : 창호(窓戶)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1월

※이왕기 교수의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1편은 2013년 2월(39호)부터 2013년 6월(43호)까지 연재되었음을 밝혀둔다.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까지... 동양 건축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창호는 창(窓)과 호(戶)를 통칭하는 말이다. 창호는 기능적으로 출입을 하고 환기와 채광을 하는,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건축 구조요소이다. 창호는 조형적으로 건물의 얼굴을 만들어 내는 의장요소이기도 하다. 창호를 어디에,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건물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

창호는 기능적, 의장적 요소이기도 하지만 정서적, 상징적 의미도 매우 크다. 창호는 사람만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다닌다. 귀신 중에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도 있지만 해로운 귀신도 많다. 그래서 예부터 나쁜 귀신이 문을 통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두었다. 귀신이 무서워 하는 인물이나 물건, 부적 등을 문에 설치해 두면 해코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창호는 또한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이기도 하다. 창호를 통해 외부 경관을 관조함으로써 자연을 즐기는 것이다. 동양의 자연관에는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이고, 자연 속에서 인간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이룬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생각이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연관이다. 자연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창호인 것이다. 창호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자연경관이 달라진다. 그 표현방법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창호에는 그 민족의 정서와 세계관, 자연관, 미의식 등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다. 창호를 통해 동양 3국의 민족성을 살펴본다.

1) 중국

중국의 창호는 한마디로 다양하고 화려하다. 창호를 만드는 재료 또한 다양하다. 목재를 비롯하여 흙을 빚어 구워 만든 것에서 돌을 이용한 것까지 다양하다. 중국의 창호는 폐쇄성과 개방성이 분명하다. 위치에 따라 외부로 면한 창은 작고 폐쇄적으로 만들지만 내부의 창호는 대체적으로 크고 개방적이다. 중국인의 혈통주의, 가족주의는 내 것에 대한 철저한 보호의식으로 나타나 외부로 면해 있는 창호는 이처럼 폐쇄적인 형태로 만든다. 반면 내부에서는 문이 없는 창호를 만들기도 한다. 즉 공문(空門)과 공창(空窓)이 그것이다. 공문은 공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의 의미와 결절점 역할 정도로 사용된다.



그림 1. 중국건축의 외부 창호는 지극히 작고 폐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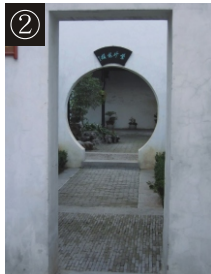


그림 2. 중국건축의 내부 창호는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화려하다. 공문(空門)으로 내부공간을 연결해 주고 있다.

중국 창호는 장식적이면서 의미와 상징성이 담겨있다. 자연경관을 관조하기 위한 창호는 특히 장식성이 강하다. 자연경관을 창이라는 틀 속에 넣어 보려는 의도에서 창은 액자가 되고, 액자 속에 경관은 그림으로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창호의 장식에는 주로 길복과 집안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와 함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창호는 단순함과 간결함으로 표현된다. 문살을 많이 사용하는 중국이나 한국과는 달리 문살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문이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살을 끼우고 종이를 발라 만든다. 어떻게 보면 ‘꾸미지 않은 멋’이라고 할까 아니면 너무 소박하여 애잔한 듯한 담수함, 동정심을 유발할 듯한 소박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창호에는 종이를 많이 바른듯하다. 그것은 문의 크기도 있지만 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이기가 커 보이는 것이다. 일본 창호는 종이를 바를 때 밖에서 바른다. 안에서 바르는 한국 창호와는 사뭇 다르다. 밖에서 보면 건물에 흰 벽이 매우 많아 보인다. 창호지를 밖에서 바르면 풍우에 견디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한다. 아마 외부공간의 경관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정원은 사람이 그 속에 어우러지기 보다는 인위적으로 꾸미고 떨어져서 두고 보는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정원문화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닐까.

일본 창호에서는 문살 문양의 상징성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문살을 많이 쓰지 않고 살 문양도 단순하게 만들면 내부공간에 은근히 비치는 모습에서 억제된 감성을 느낀다. 혹시 나뭇가지가 달빛에 그림자라도 비추면 그보다 더 일본건축을 표현한 방법은 없을듯하다. 일본 건축에서 아름다움의 반은 창호에서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림 3. 일본 건축의 문종이는 외부에서 바른다. 이것은 일본의 정원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일본건축의 창호를 내부에서 보면 소박하고 단순하며, 문살까지 지극히 절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한국

한국의 창호는 화려하지도, 단순하지도 않다. 화려한 꽃살창이 있지만 사찰에서 부처님께 헌화하는 의미일 뿐이지 생활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단순한 창호라고 하면 앞뒤로 종이를 바른 맹장지창호일 것이다. 한국에는 중국처럼 터져있는 공문이나 공창을 사용하지 않는다. 창호의 문살 문양이 중국처럼 다양하지 않다. 몇 가지 종류의 살을 창호의 위치에 따라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 외부의 창호는 문살이 조밀하고, 내부의 문살은 듬성듬성하다. 즉 외부 창호에는 세살문양이나 격자살문양을, 내부 창호에는 용자살문양이나 맹장지를 많이 사용한다. 마당으로 반사된 강한 햇빛을 문살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그림 5. 한국의 창호는 중국에 비해 화려하지 않고 일본에 비해 단순하지 않다. 비교적 화려한 속에 속하는 낙선재 ‘亞’자살 창호이다.

한국의 창호 문양에는 상징성이 담겨있다. ‘귀’자문, ‘亞’자문, ‘貴’자문, 구갑문 등의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데 집안의 평화와 가족의 번성, 부귀영화, 집안의 화평등을 상징한다. 한국의 창호 중에는 들어열개가 많이 사용된다. 들어열개를 열면 건축과 자연을 하나가 된다. 자연과 소통함으로써 성리학적 ‘천인합일(天人合一)’의 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 창호의 멋이 그 속에 녹아 있다.



그림 6. 한국건축에 흔히 사용하는 들어열개는 자연을 건축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소통의 역할을 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창호이다.

〈다음호에 계속 됩니다.〉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공간구성의 건축물을 건립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 감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공모함.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51번길 21(주월동 1042번지, 1043-1, 1043-2, 1048-11)

- 당선작 :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 우수작 : 길 건축사사무소 김삼현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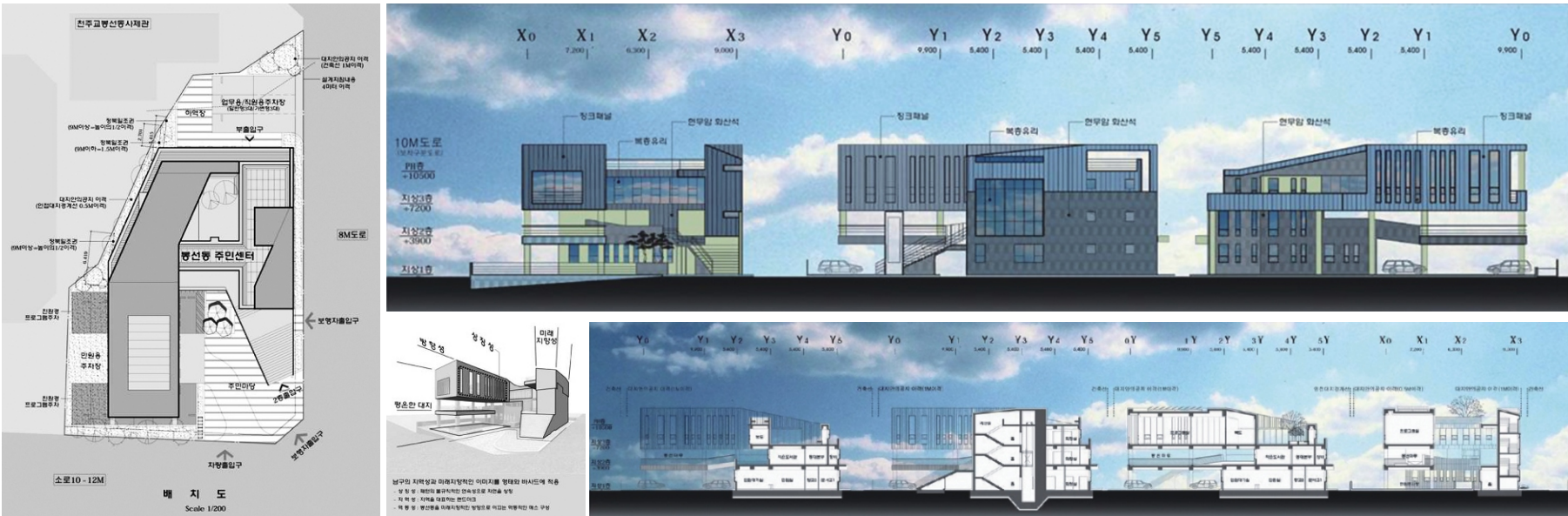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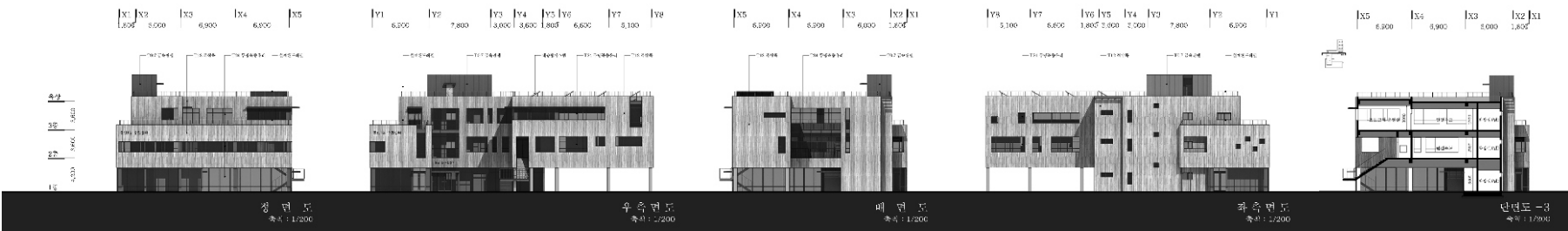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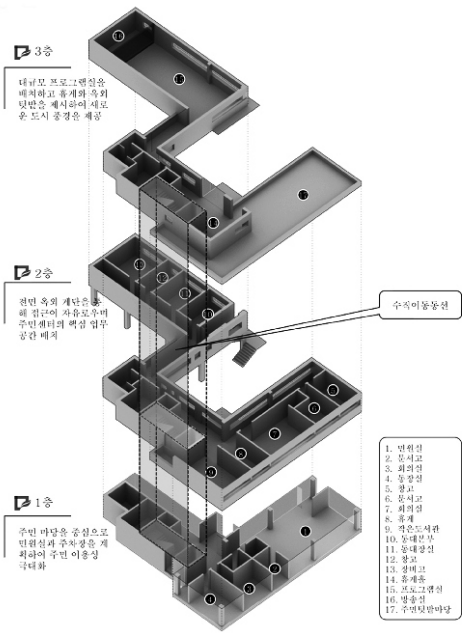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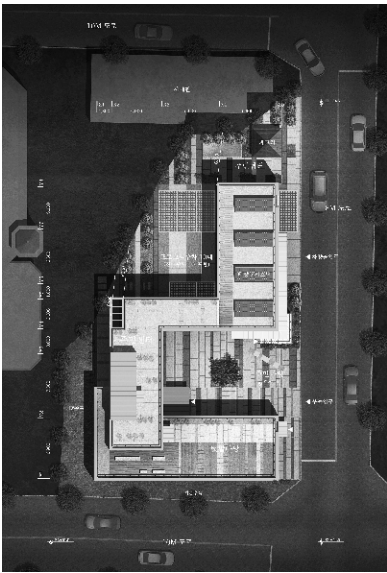
당선작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대정화구역
- 대지면적 : 1,061㎡
- 건축면적 : 435.23㎡
- 연 면 적 : 792.21㎡
- 건 폐 율 : 41.02%
- 용 적 율 : 74.66%
- 층 수 : 3층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외부마감 : THK0.7 아연페널, THK20 현무암 화산석, THK24 복층유리
- 주차개요 : 지상15대(일반형14대/장애인 1대)



우수작 길 건축사사무소 김삼현 건축사





제10회 광주 건축·도시문화제(THE10th GWANGJU FESTIVAL OF ARCHITECTURE & URBAN CULTURE) 개최

—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실에서 열려, 전야행사로 건축인의 밤 20일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문화제에는 특별전으로 스페인의 세계적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광주에서 가우디를 만나다' 주제의 전시회가 열릴 예정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관단체인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의 조용준 회장은 초청 인사말을 통해 “우리 건축·도시문화제가 매년 5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행사로 빛고를 광주광역시의 건축·도시문화와 대한민국 건축·도시문화의 미래를 한눈에 내다보는 자리가 되었다”고 밝히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물론 세계 속의 건축문화도시로 가는 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올해도 풍성하게 구성된 제10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각종 프로그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안내

11월 20일 (수)	건축인의 밤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서구 치평동)
11월 21일 (목) ~ 11월 24일 (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막식	21일 (목) 오전 10시 30분 1층 전시실
	특별전시	광주에서 가우디를 만나다(가우디 설계 작품 사진전)
	전시행사	·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 전시회 · 광주·전남 현상설계당선작 전시회 · 이동희 교수의 건축사진 초대전 ·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입상작 전시 · 전국 건축공모전 입상작전시
	시민, 학생 참여행사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전시 ·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 건축체험교실 · 건축민원상담
11월 21일 (목)	기타 전시	·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 경약취약지구 개선사업
	초청강연회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 (가우디 특별전 관련세미나)

▶ 전야행사, '건축인의 밤' 11월 20일 (수) 오후 6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로 진행되는 건축인의 밤은 광주 건축 관계자를 비롯하여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을 비롯하여 건축사, 대학 교수,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자랑스런 건축인 선정과 광주건축공모전 시상식, 전국도시재생공모전 시상식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자랑스런 건축인에는 유연욱 건축사(前(주)리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됐다. 유연욱 건축사는 학자로서, 광주, 전남 1세대 건축사로서 열정적이고 근면 성실한 삶이 제자나 후배들에게 귀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추대됐다.

▶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① 주거부분 금상 /동구 운림동 주택
②비주거부분 금상 /김대중컨벤션센터(중축)

광주광역시 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와 시공사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올해 선정 작품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인의 밤 행사에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구분	주거부분		비주거부분	
	작품명	설계자/사무소	작품명	사무소
금상	동구 운림동 주택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김대중컨벤션센터 (중축)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바디애펜피
은상	북구 일곡동 주택	강필서 건축사/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교보생명 누문동 사옥	(주)정림 건축사사무소
동상	광산구 장덕동 주택	전승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에이.작	해밀유치원	(주)나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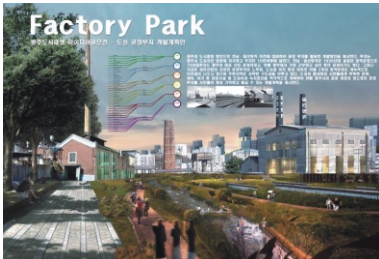
▶ 광주·전남 현상설계당선작 전시회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본지 건축문화사랑에 게재된 광주·전남지역 현상설계 당선작 20여 작품이 전시된다.

▶ 이동희 교수의 건축사진 초대전

해외에서 9번의 사진 초대전을 개최하기도 한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이동희 교수의 건축사진 초대전이 개최된다. 이동희 교수는 올해 초에 자신의 건축 에세이인 '이동희 교수의 미국건축 이야기(애플트리, 2013)' 저서 발간 기념으로 북콘서트를 열어 신문과 방송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입상작 전시



대상 : 팩토리 파크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건설을 목표로 새로운 시대정신과 도시철학이 깃든 미래 지향적인 건축 및 도시 재생의 방향성 모색을 위해 개최된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수상 작품이 전시된다.

약 3달간 진행된 공모전 기간과 1차, 2차 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품 격	성 명	소 속	주 제
대 상	이성균, 김정현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팩토리 파크
우수상	안정현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버려진 공간장 재활용 계획서
우수상	박가람, 박병욱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걷는 자들의 도시
특 선	김희연, 한수빈 외 4작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끝과 시작, 도시를 잇다.

▶ 전국 건축공모전

금남로의 변화 / 사람을 맞이하는 길, 인권을 맞이하는 길,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 가로 디자인이란 주제로 열린 광주건축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다.

▶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광주전남지역 4~5년제 건축 관련 학과 대학생들이 졸업작품전에 출품한 작품 중 우수 작품만을 선정하여 전시하는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이 열린다.

▶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입상작 전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의 중요한 요소인 건축물, 구조물, 조경, 골목길에 대한 미적 아름다움을 그림을 통해 알리고 건축 도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그림그리기 대회 수상자는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됐으며 시상식은 오는 11월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중학교 부문 최고상 : 박시는 운남중 3학년 / 한국의 단청 전주 경기전의 풍경

▶ 건축·도시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시민학생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건축 사진공모전은 지난 11월 초 입상작품이 발표했다. 총 90여점이 공모작품 중 대상에 박나호 씨의 '건축의 방향성 나의 방향성'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두 작품에는 유경주 씨의 '하얀집', 송정석 씨의 '박물관에 가다'가 선정됐다. 이외에 다수의 우수상과 장려상, 입선작이 선정되었고 이의 입상작은 문화제 기간 동안 전시된다.

대상 : 박나호 '건축의 방향성 나의 방향성'

▶ 건축체험교실, 건축민원상담

아이들에게 건축에 대한 꿈을 키워주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종이접기 및 퍼즐 그림그리기 준비가 되어 있으며, 문화제가 열리는 4일 동안 건축법규, 계획, 시공 등 민원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한 상담하는 코너 또한 마련되어 있다.

▶ 광주 특별전-광주에서 가우디를 만나다 / 초청강연회



이번 건축도시문화제 특별 기획전으로 안토니오 가우디의 작품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되고 이와 관련하여 초청강연회가 개최된다.

초청강연회는 개막식이 열리는 11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Lab. Forma Moderna 이병기 연구원의 '가우디의 설계이론'과 tamgustudio 김지혜 대표의 '바르셀로나 도시전략'에 대한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전남 목포대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받아
- 제9회 '2013 건축의 날'에서...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 인정받아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 교수가 지난 9월 26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건축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지민 교수는 1984년부터 목포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 왔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회장을 맡아 광주, 전남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남의 지역 건축문화와 섬 민가 연구, 유교 건축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김지민 교수는 올해 5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민속문화재분과 전문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한편, 김지민 교수는 본지 학술지면(2012년 5월호~9월호/30~34호)을 통해 독자들에게 우리지역 건축문화를 소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조선이공대 건축과 길종원 교수, 광주아트페스티벌에서 건축 프로그램 기획
- 공간건축 체험 및 건축사진전 열어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호응 받아



지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의 光란'이란 주제로 개최된 광주아트페스티벌에서 조선이공대 건축과 길종원 교수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건축 체험(스페이스 후레임 모형체험)' 및 '건축사진전'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학식백기교

졸업

노경민 학생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卒業 Graduate : 규정한 교과나 학업을 마치는 것.



2013년 10월 30일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사진을 찍었다. 수년간 함께 해왔던 선배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 실감 났다. 졸업이란, 학생이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모두 끝내고 학교를 떠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기관인 대학교에서 그 과정을 모두 마쳤기에 떠난다고 한다. 선배들은 이제 사회로 진출하게 된다는 뜻이다. 학교에서 다니는 동안 학생들은 인내심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학업에 열중했으며, 학교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조금 고통스럽기도 하다. 경쟁적인 시험에서 합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사회에 진출할 때 취직과 명성, 사회적 위신이 따르는 등 특권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해주어야 한다. 매년 졸업은 반복이 되지만 해마다 학생들은 바뀐다. 졸업을 맞는 학생들은 스스로 성숙해져 나간다는 느낌과 학교를 끝마친다는 해방감을 받겠지만 기쁜 만큼 진로에 대한 걱정도 같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일, 굶은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함께 나누었던 정들었던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학교와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만감이 교차하는 졸업은 먼저 졸업하신 선배들과 사회로 나가는 사회 초년생, 앞으로 사회로 진출하게 될 남겨질 후배들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고, 넷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자신의 말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철저히 하다보면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선·후배들이 한 바다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다.

건축문화 답사기

2013 광주광역시 도시재생투어 (군산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다녀와서...)



얼마 전 광주광역시가 주최 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한 광주 도시재생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할 기회가 생겨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더불어 여러 자료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가 많지 않고 직접 접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못내 아쉬운 참에 (사)광주

건축단체연합회에서 학생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무척 반가웠고 기대되기도 했다.

10월 26일 아침 일찍 광주역에서 출발한 버스는 군산을 향해 달려 나갔다. 버스 안에서 간단히 주최측의 소개와 일정순서를 전달 받았다.

군산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향한 곳은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이었다. 박물관은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판과 콘크리트의 구조가 어우러진 현대적 이미지의 건물이었다.

우선 2층에서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님의 재생과 경관정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였다. 군산 근대 역사 문화거리 재생 사업에서 제일 중요시 된 것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건물의 중요성이었다. 재생이라 하면 '되살린다' 라는 의미가 있듯이 형태는 그대로 보존하고 내부공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재생의 방법이라고 설명 들었다. 나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서 빨리 나가서 재생된 거리를 구경하고 싶어졌다. 설명을 들은 후에는 박물관에 있는 근대생활관, 전시실, 역사관 등을 관람하며 좀 더 많은 사전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박물관 바로 옆에 있는 (구)군산세관 본관이었다. 고딕양식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이 붉은 벽돌건물은 예전에 있던 부속건물은 헐어버리고 본관만 남아있었다. 현재는 관세전시관으로 우리나라에 당시 수입되어져온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재생 되었다. 국내 현존하는 서양고전주의의 3대 건축물 중 하나이며, 독일 사람이 설계했다고 한다.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면서 느껴지는 건축양식은 거의 모두가 일본풍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거리 뒤편에 있는 군산항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호남을 수탈하기 위한 물류거점과도 같았다고 한다.

세 번째로 간 곳은 군산 근대건축관으로 예전에는 조선은행 군산지점으로 이용된 건물이었다. 내부로 들어가서 놀란 것은 예전 그대로의 벽과 기둥, 천장 구조형식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몇 십 년이 지난 기둥과 벽의 구조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은 감탄스러웠고, 그 기법은 매우 신기했다.

'흔적의 기억' 이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말이 또 있을까. 말 그대로 예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건물 내부는 정말 감탄스러웠다. 또한 1층 바닥에 여러 개로 구성된 터치 형식의 모니터들은 각각의 건물을 재밌게 검색 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 근대역사와 건축물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있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한 기분을 들게 만드는 역사 문화거리는 나에게 크게 자극을 주었다. 기존의 건물을 존중 해주고 기능만 탈바꿈해줌으로써 이렇게 큰 효과와 파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박수를 치고 싶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당시의 삶의 수탈과 그에 대한 역사 영화촬영지를 연계한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는 잠시라도 심심한 틈을 주지 않았다.

이후 둘러본 고우당, 히로쓰가옥, 동국사에서는 처음 접해본 일본 건물의 구조 형태와 실의 구성을 우리의 한옥과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주거형태와 건축양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군산 근대 역사 문화거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배움과 생각 그리고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 받아서 너무 좋았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기를 희망하며 다음에도 꼭 참여 하고 싶다.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건축문화 사랑방

창간 4주년을 축하합니다.

김영수 회장 외 회원 일동

창의적인 건축문화! 문화선진국 토약!
건축의 지휘자 건축사와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열어가겠습니다!



2013 한국건축문화대상 사회공공부문 대상 이용도의 집, 고암 이용도 생가 기념관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발표

－사용승인 부문 대상,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가 설계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선정



전라북도가 건축문화의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지난 10월 31일 선정 발표했다. 부문별 대상은 사용승인 부문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건축사가 설계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이, 계획작품부문 학생부는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안재성 학생의 작품인 ‘Social pixel’, 건축사진 부문은 전주대학교 남궁보배 학생의 ‘인공바다’가 각각 차지했다.

이번 사용승인 부문 대상을 수상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옥은 도시와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투명성 있는 경영의지를 표현하였고, 외부 공간 및 건물의 주요부분을 효과적으로 비워냄으로서 건물과 도시 그리고 사람이 서로 소통하도록 계획되었다는 평가다.

한편 시상식은 올해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사용승인 대상	구분	심사번호	작 품 명	소 속	성 명
	대 상	2	한국 농어촌공사 사옥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한

사용승인 공공	금 상	4	부안 참뽕연구소	윤 건축사사무소	윤창식
	은 상	1	IKSAN T HOUSE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사용승인 일반	금 상	8	바울센터	(주)윙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은 상	5	휴안재	건이 건축사사무소	장영삼

계획작품 일반부	금 상	1	천사마을 르네상스	CL건축사 사무소	김종성,강문수, 박문규
----------	-----	---	-----------	-----------	--------------

계획작품 학생부 (대상 외 다수)	대 상	18	Social pixel	원광대학교	안재성
--------------------	-----	----	--------------	-------	-----

계획작품 학생부 특별상	여성건축회장	10	OVERCOMING AND UPRISE	우석대학교	박유정
	건축학회장	20	승암로(승암마을의 길을 걷다.)	원광대학교	정세영
	건축사회장	44	잊혀진 흔적을 치유하다 (전주시 동서학동 산성마을 활성화 계획안)	원광대학교	신희찬
	건축가회장	45	Three island of Kokunsan	우석대학교	유상길
	건설협회장	49	이엠.에코_팩토리 [EM.ECO_FACTORY]	전주비전대학교	허병호

건축사진 부문	대 상	12	인공바다	전주대학교	남궁보배
	금 상	24	전주대학교 신정문야경	전주대학교	박현규

전주시 건축사회, 도시재생 위해 건축 재능기부

－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등 재능기부 펼쳐

전라북도 전주시 건축사회가 노후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단독주택 설계(신축·증축) 및 건축전반에 대한 상담 등 재능기부를 펼쳤다.

지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병갑 회장과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시에 위치한 인후해피하우스센터와 완산해피하우스센터, 노송해피하우스센터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 신축·증축과 리모델링, 유지관리 등 건축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는 등 건축사로서 재능기부를 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 건축사회와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과 선도적인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재능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총 6회에 걸쳐 건축상담 등을 진행했다.

전라북도 제14회 건축문화제, 성공적인 개최 및 마무리

－ 건축 올림피아,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도민참여 행사로 큰 호응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많은 도민들의 호응 속에 지난 11월 9일 마무리됐다.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전북도청 공 연장 및 로비에서 진행된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는 전북도민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북 건축인의 화합과 위상강화, 건축문화 인프라 확충 및 미래 전북의 건축상을 정립하기 위해 개최됐었다. 올해 건축문화제는

는 전년도에 비해 다수의 도민 참여행사로 ‘집 그리기대회’, ‘건축 올림피아드’, ‘집 짓기 상담’, ‘건축모형제작체험’ 등이 마련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문화제가 ‘경계 그리고 어울림’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건축 전문가들과 일반 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성공적인 문화제가 되었다는 평가다.

주최측 관계자는 “내년에도 도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할 것이다”고 밝히며 “도민과 건축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사)도시연구소 시중과 추진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 수상



광주광역시와 비영리법인 도시연구소 시중이 추진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사업이 지난 10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는 전국 37개 단체와 기관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건축

사와 미술가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기술심사, 공개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4팀을 선정했으며, 광주시는 영예의 대상에 뽑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는 지역 주민과 함께 특별강연·주민 설명·대학교육을 운영하고 공공문화 활동을 거치는 등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우선으로 여기고 진행된 경관취약지 개선사업이다.

특히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의 ‘계림동 푸른길공원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광주시의 보조금 사업 공모에 당선된 비영리법인 도시연구소 시중이 맡아 지난 2011년부터 2년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본지에서는 다음 12월호(49호)에 이와 관련 (사)도시연구소 시중 이순미(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연구소장과 인터뷰를 갖고 자세한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광주건축가회,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와 친선골프교류전 가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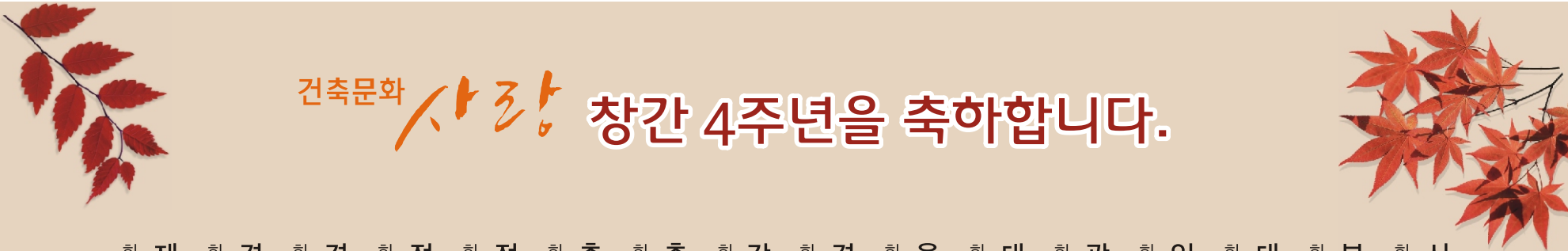
－ 지난 10월 29일 광주 무등산CC에서 양회 친선 도모를 위해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와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가 지난 10월 29일 무등산CC에서 친선골프교류전을 가졌다.

이날 인사말에서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정광민 회장은 “양협회의 계속적인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자고 이번 교류전을 개최했다”고 밝혔으며 (사)한국공간디자인협회 길종원 회장은

은 “광주·전남의 건축 및 공간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말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조충기 외 회원일동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성우 외 회원일동
대구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유흥재 외 회원일동
인천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동욱 외 회원일동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안길전 외 회원일동
대전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송영규 외 회원일동
울산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정태석 외 회원일동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김인철 외 회원일동
강원도건축사회 회장 김종오 외 회원일동
충청북도건축사회 회장 한재희 외 회원일동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최종욱 외 회원일동
전라북도건축사회 회장 김남중 외 회원일동
전라남도건축사회 회장 국원식 외 회원일동
경상북도건축사회 회장 임송용 외 회원일동
경상남도건축사회 회장 박무귀 외 회원일동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회장 고봉규 외 회원일동

광주건축사회, 경남 거제에서 2013년도 회원 워크숍 개최

— 200여명의 건축사 참여, 구 건축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행정 건실화와 발전방향 논의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간 경남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2013년도 회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워크숍은 윤리교육과 자기계발교육, 건축공사감리공영제에 대한 논의, 구청 건축과장과의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윤리교육 특별강사로 대동문화재단 조상열 이사장의 강연과 한국저작권비즈니스센터 전유림 대표의 저작권 관련 강연이 있었으며, 정명철 부회장의 진행으로 건축공사감리공영제에 대한 토론회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안길전 회장의 사회로 광주시 4개 구청 건축과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대다수의 회원들이 건축 행정에 대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이틀날에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행사일환인 ‘가우디와 바르셀로나를 걷다’ 전시회 참관과 영화의 전당 답사 등이 진행되기도 했다.

세계적 건축 거장들의 작품, 8개의 광주폴리Ⅱ 개막

— 11월 10일 광주비엔날레 거시기홀에서 시작, 폴리투어 등 세미나도 진행



세계적 건축 거장들의 작품, 8개의 광주폴리Ⅱ가 개막했다. 세계적 건축의 거장 렘 쿨하스가 설계한 ‘투표’,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이가 제작한 ‘포장마차’, 워싱턴 흑인미술관 설계자인 데이비드 아자예가 계획한 ‘광주천독서실’, 덴마크의 예술가그룹 수퍼플렉스의 ‘유네스코 화장실’, 서도호가 기획한 ‘틈새호텔’ 등 8개의 작품이 광주폴리의 이름으로 개막식을 가졌다. 지난 11월 10일, 광주천 독서실에서 열린 공식 개막 행사는 축하공연, 강운테 광주시장 겸 (재)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의 인사말과 미콜라우스 히르쉬 총감독의 작품소개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11일에는 참여건축가와 예술가, 건축이론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광주폴리는 지난 2011년 11개의 폴리와 올해의 8개 폴리까지 더해져 총 19개가 구도심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2013 도시재생 군산투어 진행

— 본지 후원으로 지난 10월 26일 군산 근대역사문화거리 답사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주관하며, 본지 건축문화사랑이 후원하는 2013 광주 도시재생 군산투어가 지난 10월 26일 건축사, 교수, 공무원, 학생,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군산 투어는 지난 상반기 진행된 대구도시재생투어에 이어 선진지 견학을 통해 광주의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광주 도시재생의 발전 및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김현숙 교수의 ‘군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경관정비와 원도심 재생’ 세미나와 함께 근대 역사문화거리인 장미동, 월명동 지역을 돌며 (구)군산세관, 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신흥동 일보식 가옥, 동국사 등을 답사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매년 광주시의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선진지 답사를 계획·추진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30대 시·도회장 협의회 광주 방문

— 지난 11월 1일과 2일, 건축 관계 현안 협의 및 디자인비엔날레, 의제미술관 운주사 등 답사



지난 11월 1일과 2일 양일간 대한건축사협회 30대 시·도회장 협의회 회원들이 광주를 방문했다.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16개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은 ‘거시기, 머시기’란 주제로 진행된 2013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2001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한 의제미술관, 화순 운주사 등을 답사했다. 이와 함께 첫날에 진행된 협의회 회의에서는 장시간에 거쳐 건축 관계 현안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도출된 사항은 오는 11월 14일 충북 충주에서 대한건축사협회 김영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는 시·도회장 협의회에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건축가회, 영화 ‘말하는 건축 시티:홀’ 정재은 감독과의 대화 마련

— 오는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광주극장에서 진행

故 정기용 건축사의 건축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말하는 건축가’로 유명한 정재은 영화감독의 두 번째 건축영화가 광주에서 상영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과 관객의 만남도 이루어진다.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와 나무심는 건축인, 광주극장이 주관하고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번 만남은 오는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 광주극장에서 영화 상영 후 진행될 예정이며, 정재은 감독이 직접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두 번째 건축이야기 ‘말하는 건축 시티:홀’은 ‘서울시 신청사’ 콘셉트 디자인의 최종 당선자인 유걸 건축가가 주연으로 서울시 신청사 완공까지 7년,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광주건축사협회원 김권수 건축사, 광주시 복싱연합회 초대회장 취임

— 지난 10월 19일 염주체육관 복싱장에서 복싱관계자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 가져

광주건축사회 김권수 회원((주)보림 건축사사무소)이 광주시 복싱연합회 초대회장에 선임됐다. 지난 10월 19일 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복싱장에서 광주 동구·북구·광산구 복싱연합회와 광주·전남 복싱체육관 관장단 연합회가 국민생활체육광주시복싱연합회 창립기념식을 열고 김권수 건축사를 초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김권수 건축사는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 때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스포츠가 복싱이다. 비록 잠시나마 침체기는 있었지만 국민생활체육 광주시 복싱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복싱의 중흥을 널리 알리고 복싱 동호인의 자변확대와 꿈나무 육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발표

— 전회시험 포함 전과목 합격자 578명, 최종합격자 발표는 12월 30일

지난 9월 치러진 201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11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예정자 명단을 공고했다.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40호로 공고된 내용에 따르면 전회시험을 포함하여 전과목 합격자 578명과 2과목 합격자, 1과목 합격자를 차례로 공고했다. 최종합격자는 제출서류 접수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되며, 자격증 교부는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7) 또는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3415-6873~4)으로 문의하면 된다.

비에스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봉 성 광주 서구 운천로 92번길 1 T.062)383-1759 F.062)376-2281	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김 삼 현 광주 남구 월산4동 973-11번지 (2층) T.062)376-0300 F.062)376-0054	(주)승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문 강 욱 광주 북구 용봉동 1414-3번지 T.062)526-8660 F.062)376-0054	금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송 명 근 광주 서구 쌍촌동 1239-7번지 T.062)368-1213 F.062)373-1231	(주)건축사사무소 누리 건축사 안 천 수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21,401호 T.062)961-2330 F.062)961-2335	(주)한길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안태경, 선재규, 양동협, 선형중 광주 서구 운천로 153 T.062)365-8151 F.062)371-5707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양 상 훈 광주 동구 계림동 중앙로 306 T.062)220-7077 T.062)234-4900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건축사 윤 대 두 광주 북구 신안동 122-3번지 (5층) T.062)521-2377 F.062) 521-2399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 정 수 서구 시청로 96번길 12(치평동 골든빌 310호) T.062)373-3131 F.062)384-3534	초석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 상 채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T.062)527-8043 F.062)512-8041	(주)이건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정 재 한 광주 동구 계림동 중앙로 306 T.062)220-7003 T.062)234-2123	종합건축사사무소 한맥 건축사 한 명 석 광주 서구 경열로 20(농성동) T.062)352-0415 F.062)352-0416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 사무소 개설**
 - 조연수 건축사 / 현대이앤지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182-1 4층
- * 변경(소재지)**
 - 왕성호 건축사 / 푸른&다예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운천로 118 동성빌딩 5층
- * 전입**
 - 배석순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우치로 383번길 16
- * 진출(광주 → 경기도)**
 - 송완근 건축사 / 대웅 종합건축사사무소
- * 결혼**
 - 장정수 건축사 /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장남 결혼 / 10월 19일 (토)
 - 김동선 건축사 / (주)원일 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 11월 2일 (토)
 - 김권수 건축사 /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 11월 16일 (토) 낮 2:10
수이비스웨딩홀 (2층) 크리스탈홀
- * 부고**
 - 조문송 건축사 / 소울 건축사사무소
모친 별세 / 10월 9일 (수)
 - 이영우 건축사 / 동도 건축사사무소
모친 별세 / 10월 27일 (일)
 - 박성근 건축사 / 성민 건축사사무소
장모 별세 / 11월 1일 (금)
 - 안찬호 건축사 / 으뜸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친 별세 / 11월 4일 (월)
 - 강동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라움
장인 별세 / 11월 4일 (월)

News 광주·전남·전북 11월 지역축제 안내

- ▶ 11.14(목)~11.16(토)까지 제7회전북청소녀영화제-전북전주시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 ▶ 11.14(목)~11.17(일)까지 2013광주국제식품전-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 ▶ 11.15(금)~11.16(토)까지 2013완주마을나들이큰잔치-전북완주군농촌사랑학교일대등
- ▶ 11.20(수)~11.24(일)까지 제18회광주인권영화제-광주동구광주영상복합관6층G시네마
- ▶ 11.22(금)~11.24(일)까지 제10회군산세계철새축제-전북군산시금강철새조망대등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3147(2012. 10. 4) 주차대수인정

광주·호남 문의 H.P 011.618.289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0.29)

1. 제안이유

현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만 고려하여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리융자사업의 제한적 시행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며, 그 밖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제4항 신설).

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기사항의 전산정보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사.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부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평가서를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아. 시·도지사는 녹색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차.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07호, 2013.10.29~12.9)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법률 제11921호, 2013. 7.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의 용어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꾸고, 국민이 주거지역 등에서 창업하는 경우 쉽고 편리하도록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를 기능별 설명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근린생활시설 내 세부 용도간 변경시에는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 법령소식 874번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최봉휴 건축사 / 성우 건축사사무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지침리 38-1
- * 부고**
 - 이재필 건축사 / 동방 건축사사무소
본인사망 - 9월 9일
- * 결혼**
 - 노경윤 건축사 /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장녀결혼 - 10월 12일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 * 입회**
 - 백우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백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9길 2(서신동)
- * 재입회**
 - 주진수 건축사 / 삼목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터1길 9(서신동)
- * 결혼**
 - 방성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탐
차녀 결혼 / 11월 23일 (토) 낮 12:00
군산 공전웨딩홀 2층 사랑홀
- * 부고**
 - 서문용진 건축사 / 서문 건축사사무소
모친 별세 / 10월 15일 (화)
 - 정주용 건축사 / 가림 건축사사무소
장모 별세 / 10월 23일 (수)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성,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창간 4주년 기념호

2009년 11월 첫 발행을 시작으로 어느덧 48호,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철 동일교역(주)	900,000원
(주)영무건설	700,000원
장진영 (주)디딤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전북 익산시건축사회	300,000원
전북 김제시건축사회	300,000원
(주)아토파킹	2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세상사는느낌

환경을 생각해 본다.

배 철 용 건축사
청건축사사무소

요즘 TV프로그램 중에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인간의 조건”은 예능프로그램이면서도 시사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프로그램이다.

얼마 전 “쓰레기 없이 살기”라는 테마로 프로그램을 방송한 적이 있었다. 그 프로그램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만들기도 했었다. 그것이 큰 계기가 되어 그 후로도 시사적인 부분의 테마가 좋아서 꼭 찾아보곤 한다.

요즘 TV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시청률에 얽매여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부분을 방송하는 거에 비하면 시청자들을 끌어 들이는 요소가 약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 프로그램은 시사적인 면과 능력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 자꾸 찾아보게 만드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것 같다.

마침 요 근래에 집을 정리했는데 집에서 나오는 많은 쓰레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많은 일회용품들과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기타 공산품들... ‘과연 우리는 그것들 없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아~ 살기 어렵겠구나! 아니 살수 없겠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생각해 보았다. 그냥 유익한 프로그램 하나 봤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할 지? 어떻게 살아야 환경적으로 좋을 지? 그리고 우리 후대에 어떤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지? 등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게 생각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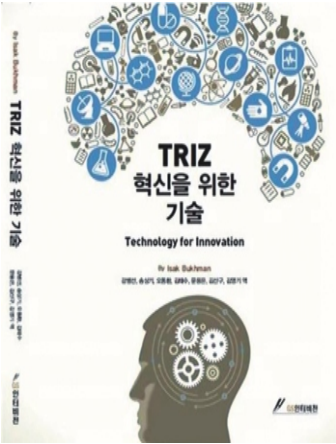
요즘에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리고 읽히는 단어는 녹색성장, 친환경이다. 특히 건축물이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자주 접할 수 밖에 없는 단어이다. 그래서 건축을 어떻게 설계하고 계획해야 친환경적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건축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지에 대해서 또한 환경적으로 유익한 지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과 고민이 반복되고 있다.

흔히 친환경 건축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등 액티브(ACTIVE)한 요소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들은 추가적인 요소들이며, 패시브(PASSIVE)적인 요소가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추가적인 비용만 들어가 오히려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경을 생각하다 보니 그런 액티브(ACTIVE)적인 요소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그런 요소들이 오히려 환경에는 더 해가 되지 않나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축은 고대 쉼터(Shelter)개념에서 현대사회에서는 고도 경제 성장의 상징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다. 현 사회는 변해가고 끊임없이 발전해가겠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래에 어떤 사회가 될지 고민만 하지 말고 실천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부터라도 일회용 종이컵을 쓰는 대신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겠다.

내가읽은책

「TRIZ 혁신을 위한 기술(Isak Bukhman 著) / 오동환의 6인 譯」



현재 복잡한 세상속의 아이러니는 우리의 삶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해결책들이 사실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체계적으로 이 복잡한 특징들을 창의적이고 간단한 해결책에 다다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TRIZ 혁신을 위한 기술’의 원저자인 Isak Bukhman은 생산 및 공정 개발과 제조분야에 35년이 넘는 실무경험을 갖고 있는 트리즈 마스터이며 트리즈 연구를 위한 알트슬러 연구소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저자는 단순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들 구성원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위한 특권과 의무를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다섯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첫째는 트리즈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는 트리즈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그리고 트리즈 논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의 생

한편의시

건축사

이 성 우 건축사
(주)영탑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산광역시건축사회장

건축사법 제2조 1항
“건축사” 라 함은 ... 중략 ...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밤새워 그린
집에 곡을 붙이고 노랫말 짓는
화가도, 음악가고, 시인도 아닌, 그는

낮선 선과 점을 찾아 도시를 해매다
잊혀진 골목길이 밝힌 대로 남아가는 흔적에서
아버지의 아버지, 그들의 춤사위를 길어 올리는

새를 불러 보아 만든 숲과 육백리 강 끝자락 잡은
실개천에 부어 놓을 한 움큼 햇살만큼
도심의 하늘을 도려내는

비와 바람의 길을 열고
흙의 까칠한 성미와
땅속으로 흐르는 물의 속내까지도 달래는, 그는

때론, 명을 풀 듯 개고 이긴 콘크리트 속
긴장한 철근의 비틀림과
망치질 받아내는 못의 아픔을 헤아리는

현미경의 눈
바람내 맡는 코
햇살 터지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좁은 어깨에 실린 무한한 짐이 오히려
가슴 덥히는
빈손 가득 닳은 연필 쥔, 그는
누구인가

오 동 환 팀장
현대제철 제어기획팀

각과정을 여는 방법을 설명한다. 세번째는 창의적 삶을 준비하기 위한 철학을 소개하여 배양한다. 넷째는 혁신을 위한 트리즈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문제해결과 시스템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팀들의 최고의 실전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3개의 부록에서 모순행렬표와 트리즈 훈련코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만들어 졌고 교과서로 추천한다. 또한 기술개발, 설비운용, 서비스 개발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는 실용적인 핸드북이 될 것이다.

본 서적은 TRIZ Level 3를 취득한 대학교수, 기술사, 번리사, 책임연구원, 기술가치평가사 등 전공이 다른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번역하고 TRIZ 전파를 위해 교육하고 있다.

저자 : 오동환 / 경북대 박사수료, 前 POSCO, 現 현대제철 제어기획팀장, 전 기기기술사, PMP, TRIZ Level 3

건축사 Gallery



군산의 멋은...
근대 건축의 멋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 수탈의 대표적 대상지였던 전라북도 군산. 일본 식민지 시대의 잔재가 오히려 한 부분의 문화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 아이러니 하다. 군산의 근대 건축의 멋에는 우리민족의 슬픔이 묻어 나온다.

(주)에이디그림 건축사사무소
심상봉 건축사(광주)

건축사 Photo



흔적

고즈넉한 겨울 눈내린 금산사 경내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발자취를 보며 좁디좁은 경내에 나있는 여러 흔적 속에 삶의 발길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고민해봅니다.

남북 건축사사무소 정범수 건축사(전북)

건축의 행복을 위해 건축사공제조합이 함께 합니다.

건축사공제조합이 「보증」해 드립니다.



♣ 건축사공제조합은
손해배상공제(보험) 업무와 별도로
국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에 근거한 보증기관으로
입찰·계약·하자보수·선급금지급 등 보증서를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약정체결이 필요하며,
연대보증사 없이 체결하는 소액한도거래약정과
연대보증사를 세워 체결하는 한도거래약정이 있습니다.

※ 연대보증사의 유무에 따라 보증이용한도가 달라집니다.

건축사공제조합은 손해배상공제업무로 인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화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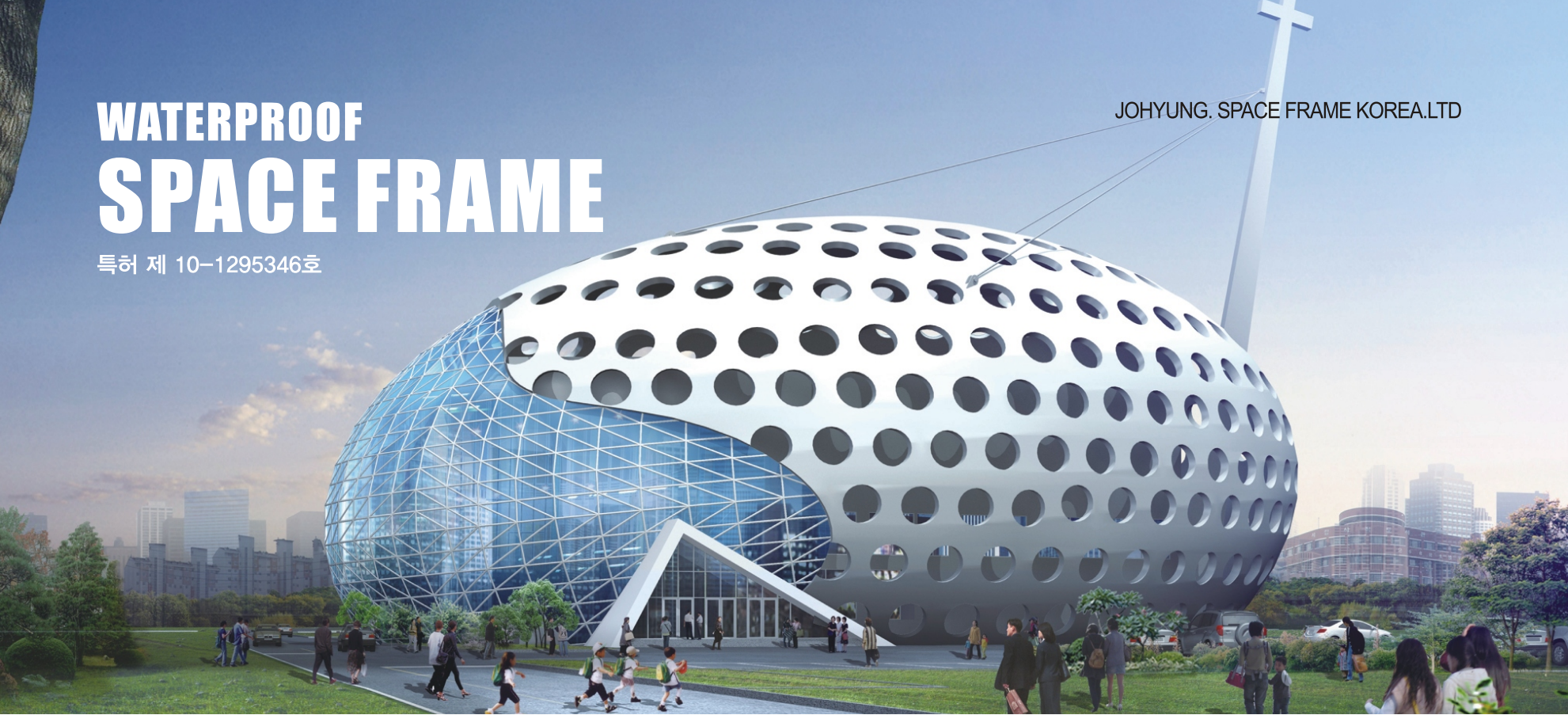
문의사항은 02-3473-0900으로 연락바랍니다.



WATERPROOF SPACE FRAME

특허 제 10-1295346호

JOHYUNG. SPACE FRAME KOREA.LTD



WATERPROOF SPACE FRAME

WATERPROOF SPACE FRAME(방수스페이스프레임)의 특징

- 기동없는 대공간 구성가능 [교회, 강당, 전시실, 공장, 체육관, 컨벤션센터, 유리온실(식물원, 야구장, 축구장), 토목(교량, 무지개다리), 광고탑]
- 일반 철골구조나 콘크리트 쉼구조보다 경량이므로 기동단면이나 기초단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공사비 절감
- 자체방수가 되므로 기존스페이스프레임 보다 내구성 향상
- 기하학적인 자유곡선을 만들 수 있으므로 건축사의 의도 반영 (최소반경 2M 까지 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공기 단축과 운반이 용이하므로 어떠한 도로여건에서도 공사가능(공장제작, 현장설치)
- 모멘트의 발생을 막고 접합부가 압축과 인장을 받는다.
- 진동현상에 트러스 풀림 방지 기능
- 정밀시공가능으로 설계자 의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적용분야

태양광 지지대, 옥외주차장 지지대



케노피, 야외무대, 파고라, 톨케이트, 체육관, 강당, 전시실, 교회, 공장, 창고, 실내체육관, 자유곡선 지붕



예당고 체육관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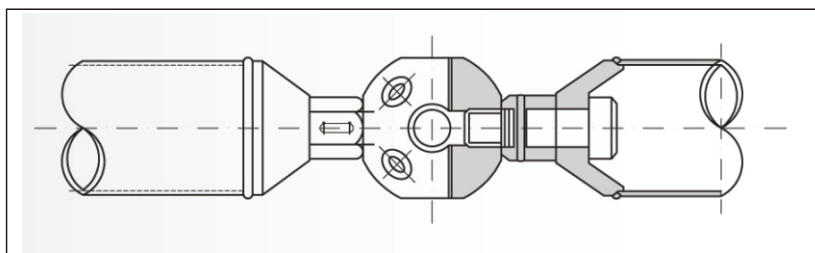
야외 경기장



야외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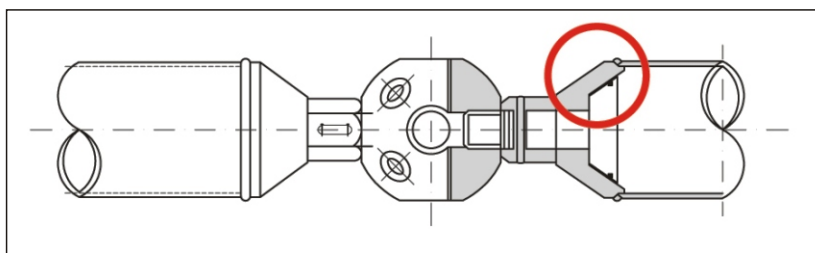


일반 SPACE FRAME



내구성 : 볼트와 콘사이로 수분유입으로 부식방지 우려

WATERPROOF SPACE FRAME



내구성 : 볼트와 콘사이의 방수구조로 수분 유입을 막아 부식을 방지하는 공법 및 풀림 방지 기능

SPACE FRAME 장점

- 입체격자구조로서 미관이 아름답다.
- 공사제작기간과 현장 조립기간이 철골 공사에 비해 절반으로 단축
- SPACE FRAME은 전량 공장에서 제작관리되어 현장에서 용접이 없으므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며, 정밀시공이 가능
- 입체적으로 연속되어진 격자구조로서 프레임 일부부재에 결함이 발생되더라도 구조물 붕괴현상을 막을 수 있어 안전도에서 유리
- 장 SPAN 인 경우 원가절감이 유리
- 열용사 용융코팅 방식으로 다양한 컬러연출, 내식성 우수, 기존구조물보다 수명연장
- 시공완료 후 추가하중 부담에 의한 설계변경 시 보수, 보강공사가 용이
- 공사비 단가 철골대비 80% 정도

조형 스페이스 프레임 코리아(주)

본사 : (우)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96(치평동, 4층) 대표 : 강 현 구
전화 : 062)384-2225, 653-8122 / 팩스 : 062)383-5677 / H.P : 010-3602-8100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탁스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차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탁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탁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주력제품 : FBD PANEL

- ❖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동일교역(주)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